

# 董仲舒의 陽 중심 사상에 대한 고찰

-『黃帝內經』과의 比較를 통하여-

慶熙大學校 文科大學 哲學科<sup>1</sup>

金星芝<sup>1</sup> · 金守中<sup>1</sup> \*

## A Study on Dongjungseo(董仲舒)'s Yin-Yang theory

- Yang Central Idea -

Kim Sung-ji<sup>1</sup> · Kim Su-jung<sup>1</sup> \*

<sup>1</sup>Dept. of Philosophy, Kyung Hee University

The most famous thought of Dongjungseo's must be 'the Sky-Earth Response Theory.' The theory includes the Same 'Gi' Correspondence(the Same Category Homology) and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and the men based on Yin-Yang. This theory, commonly studied by the scholars of the political science, however, has been constituting the found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 Also, he insists many other theories related to Yin-Yang including the natural calamity, the treatise of human nature, the name and reality, and the national school of Confucianism, etc.

This paper covers the Yin-Yang theor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ethics, politics, human nature of Dongjungseo, and the comparison of his Yin-Yang and that of the Emperor Inner Cannon. Dongjungseo insists on the harmony of Yin-Yang just only in the area of health care, excluding other areas such as state and family governance. However, in contrast, he asserts the Yang central idea for what he defined as the order of a family, a society and a state. This presents his contradiction and logicity. In the last part of this paper, his logical flaws would be discussed and analysed. However, he is a lucky scholar, because his Yang central idea has been successfully governing peoples for a long time, despite such imperfection and contradiction in his studies.

**Key words** : Moral and Political Yin Yang, Human Nature of Yin Yang, Yang central idea, Yin-yang

## I. 緒論

東洋文化의 전통에서 '陰陽' 이론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에서 볼 때도 가장 보편적인 개념의 하나라 할 것이다. 陰陽 개념은 천문, 지리, 풍수 뿐 만 아니라 정치, 경제, 윤리 등 문화의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던 것이다.

\* 교신저자 : 金守中.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E-mail : sujung@khu.ac.kr Tel : 02-961-0229  
접수일(2009년 7월 24일), 수정일(2009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陰陽 이론의 기원에 관해서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 태양의 향배 등 자연의 현상에서 얻은 것이라는 설, 둘째 남

너의 생식기관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설, 그리고 셋째는 『周易』의 陽爻와 陰爻에서 유래한다는 설 등이다. 아직까지 어느 것이 옳다는 正論은 없다.<sup>1)</sup>

우선 문헌상으로 보자면 陰陽이라는 ‘상보적 대립자’의 개념은 『周易』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周易』은 본래 占書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周易』 본문에서는 ‘吉凶’ ‘剛柔’의 개념이 가장 넓게 사용되었으며 아직 ‘陰陽’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전국시대에 오면서 『周易』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繫辭傳』등 十翼이 등장하면서 더욱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陰陽’ 개념이 사용되어 다른 대립 개념들을 흡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周易』 十翼의 해석학에 따르면 陽爻인 ‘—’은 강건함, 적극성, 낮, 남자, 지아비, 군주, 大, 나아감, 움직임, 부유함, 겉, 참의 뜻을 가지며, 陰爻인 ‘--’은 유순함, 소극성, 밤, 여자, 지어미, 신하, 小, 물러남, 고요함, 가난함, 속,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진다.<sup>2)</sup>

그런데 원래 『周易』에서 ‘상보적인 대립자’의 개념이었던 陰陽 개념은 漢代 이후 음을 우선하고 높이는 입장과 陽을 우선하고 높이는 입장 등 다양한 해석으로 분화되었는데, 그 주류에서 말하자면 ‘陽尊陰卑’라는 가치적 차별성을 갖는 개념으로 귀결되어 동양 문화의 基底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를 가져다 준 대표적인 학자는 董仲舒였다.

그러면 동중서는 어떤 근거에서 ‘陽尊陰卑’라는 ‘陽 중심의 陰陽論’을 정립한 것일까? 그 사회적,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동중서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陰陽論은 동양 전통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陰陽 개념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동중서 사상에 있어서 陰陽의 도덕성 문제, 陰陽論의 政治的 측면, 陰陽論을 이용한 性情論, 그리고 董仲舒의 陰陽論과 『黃帝內經』의 陰陽論을 비교 고찰할 것이다.

1) 張寶龍. 董仲舒學說內在理路探析.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7. p.148.  
2)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p.19.

## II. 本論

### 1. 董仲舒 사상의 역사적 배경

陰陽理論은 夏·殷·周 고대 농경 사회에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각종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이 때 음양 사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 발전한다. 즉 陽 중심과 陰 중심이다. 儒家의 『易傳』<sup>3)</sup>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상은 陽 중심이고 老莊 등 道家<sup>4)</sup>를 중심으로 발전한 사상은 陰 중심이라고 보인다. 戰國時代 이후 儒家나 道家 모두 陰陽을 우주의 변화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일치하지만 陰陽사상을 활용하는 데에서는 두 입장이 대조적이다.<sup>5)</sup> 儒

- 3) 『주역』 『繫辭傳』 제 1장에 ‘天尊地卑하니 乾坤이 定矣오, 卑高以陳 하니 貴賤이 位矣오. 動靜有常하니 剛柔이 斷矣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繫辭傳』에는 음양이라는 말 대신에 乾坤, 剛柔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동중서는 위의 『繫辭傳』에 나오는 ‘天尊地卑’라는 문구에 ‘陽尊陰卑’라는 단어를 대치하여 그의 저서 『춘추변로』의 편명으로 사용한다.
- 4) 老子. 오강남 풀이.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2. p.39.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꿩길듯하면서도 이어지고 씨도 다할 줄 모릅니다.(谷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是謂天地根綿綿若存用之不動) 前揭書. p.55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여인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天門開闔能無雌乎.)” 前揭書. p.159.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그지없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단단한 것을 이겨 냅니다.(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前揭書. p.259. “여성은 언제나 그 고요함으로 남성을 이깁니다. (牝常以靜勝牡.)” 前揭書. p.320.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온갖 풀과 나무 살아 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뻣뻣해집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이 무리입니다.(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 萬物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故堅強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前揭書. p.328.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힘센 것을 물리치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대신 할 것이 없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는 것 세상사람 모르는 이 없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위의 예문들은 老子가 陰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 5) 김제란. 동양적 가부장제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음양사상-선진에서 한 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철학 2000. 9. p.8.

家가 陽중심설을 택하는 다른 이유는 중국대륙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가 있다.<sup>6)</sup> 북방문화의 대표인 夏나라와 남방문화의 楚나라에서 서로 다른 儒家와 道家가 출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道家사상은 두 지류를 형성한다. 한 지류의 사상은 노자철학이 장자사상과 결합하여 老莊哲學이 된다. 그리고 다른 지류는 노자철학과 법가 및 음양가 등 유가까지 결합하여 새로운 사상이 형성된다. 결국 도가를 포함하여 儒家, 法家, 墨家, 陰陽家 등 여러 학설들이 혼합·절충되어 黃老學이라는 사상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혼합·절충적인 黃老學은 漢나라의 통일 국가에서 흥성한다.

이때부터 陰陽理論은 黃老學의 일부가 되어 政治理論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것은 도가 뿐 만 아니라 유가의 仁義 道德論과 결합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연의 관찰에서 얻은 일종의 자연과학적 陰陽理論이 점점 도덕 가치론적인 人文學과 占術에까지 사용되었다. 陰陽五行說은 원래 『易經』과는 무관한 사상이었지만 차츰 易에 관한 사상과 결합하여 중국 특유의 自然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사상이 되었다. 그리고 陰陽理論은 끊임없는 인간 활동의 歷史와 思想 등에서 정밀하게 발전하여 易傳, 墨家, 儒家, 道家에 영향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醫學에서도 陰陽理論은 중요한 기초이론이 된다. 또한 ‘天人感應’을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宇宙論, 天文學, 宗教, 哲學, 科學, 易學, 醫學, 風水地理學 등 모든 분야에 陰陽理論을 적용한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해온 과정에서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다

6) 최재복 역주. 老子. 서울. 을유문화사. 2006. pp.28-29. “날씨가 차고 자연조건이 거칠어서 북방 사람들의 기질은 적극적, 작위적, 이성적, 인륜적이며 성격이 억세고 투쟁적이며 현실적이기 때문에 實·有를 중시한다. 이들의 성향은 황량한 중국 북부를 흐르는 황하강 유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仁義禮智를 숭상하는 공맹사상이 싹을 틔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및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적이며 따뜻한 陽의 기운을 추종하고자 한다. 반면에 양자강 하류에 위치한 楚 나라를 위주로 한 남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물이 잘 자라서 물산이 풍부하여 도가사상이 탄생한다. 그들은 無爲自然을 즐기며 虛와 無를 중시한다. 이들의 기질은 여성적이며 순응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하여 차가운 성질의 물 [陰] 을 좋아하고, 물이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상징한다.”

보니 미신으로 빠져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周易』 계통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고 특히 韓醫學의 臨床에서는 그 理論의 실체가 證明되고 있다.

이처럼 漢代 철학자나 정치가들은 陰陽理論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漢代사상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사상들을 종합·절충하는 경향이 있었다. 董仲舒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는 전통 儒家 사상에 陰陽家와 法家, 道家 사상을 종합, 절충하였다. 그의 世界觀에서 주요한 구조를 이루는 陰陽五行論은 기본적으로 陰陽家들의 사상을 흡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동중서는 儒家를 내세우고 陽 중심의 陰陽論을 전개하게 된다.

董仲舒<sup>7)</sup>(기원전 약179~기원전 약104)는 중국 廣川 사람이며 B.C. 136년 儒敎를 중국의 國學이자 정치 철학의 토대로 삼는 데 이바지한 철학자이다. 그의 생몰 년대는 불분명하다. 그의 조상과 가정에 대한 상세한 정황은 깊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가정은 밭이 千百으로 연이어졌으며, 소와 말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田連千百, 牛馬成群) 또한 많은 藏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정은 중국전통사회에서 농사를 경작하며 독서를 하는 가정(耕讀之家)이었다. 그의 농촌에서의 생활은 훗날 그가 음양철학과 유가 철학을 통합하는데 일조를 했다.<sup>8)</sup> 그 당시 동중서는 『春秋公羊傳』을 연구한 經學者였다. 그러나 동중서가 살았던 前漢 초기(漢高祖~景帝)의 정치사상은 黃老道家思想이 중심이었다. 그 이유는 秦나라의 가혹한 법령과 장기간의 전쟁 및 노역으로부터 백성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7) 司馬遷. 史記 第十冊. 北京. 中華書局. 1996. p.3127. “동중서는 『춘추』를 연마함으로써 景帝(B.C. 157~141) 때에 박사가 되었다. 장막을 쳐놓고 강론하고 암송하였는데 제자들은 입문한지 오래된 순서대로 수업하는 방법으로써 전수하였으므로 어떤 제자는 스승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고 동중서는 3년 동안 자택의 정원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학문에만 정진을 했다. 출입에 예의를 다하고 예법에 맞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 학자들은 모두 스승의 예로써 그를 존중하였다.(董仲舒, 廣川人也. 以治春秋, 孝景時爲博士. 下帷講誦, 弟子傳以久次相授業, 或莫見其面. 蓋三年不窺園, 其精如此. 進退容止, 非禮不行, 學士皆師尊之.)”

8) 馬勇. 曠世大儒 董仲舒.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2000. pp.2-3.

漢高祖는 秦제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가급적 관대한 정치를 펼치려고 했다. 그래서 “유방은 刑과 德을 결합한 방침을 실행하였다.”<sup>9)</sup> 따라서 이 시기에는 황로사상이 조정안에서 세력을 얻고 있었다.<sup>10)</sup>

동중서가 박사가 되어 조정안에서 활동한 시대는 漢初 제4대 景帝(B.C. 157~141)와 제5대 武帝(B.C. 140~87)의 시기였는데 이때 景帝와 그의 모후 竇太后는 모두 道家 학자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동중서는 黃老學을擁護하는 儒學者의 신분<sup>11)</sup>으로 조정에서 활동 가능했을 것이며 황로사상가들과의 교류로 인하여 서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독창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음양이론으로 만물의 生長收藏을 설명한다. 또 그는 인간의 感情과 道德 및 政治까지도 陰陽이라는 자연의 기제로써 유비시켜 설명한다. 漢儒들의 논의에서는 비록 세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이상 현상들은 모두 人事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중서는 2000년<sup>12)</sup> 동안 純儒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저술 『春秋繁露』에는 음양가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절반 이상이다. 예를 들면 「離合根」·「立元身」·「順天之道」를 포함하여 「陽尊陰卑」·「天容」·「天辨在人」·「陰陽位」·「陰陽終始」·「陰陽義」·「陰陽出入上下」·「天道無二」·「暖燠常多」·「四時之副」·「人副天數」·「同類相動」·「五行相生」·「五行相勝」·「五行順逆」·「治順五行」·「治亂五行」·「五行變救」·「五行五事」·「求雨」·「止雨」·「天地之行」·「天地陰陽」·「天道施」篇들이다. 이 편들의 내용은 孔子, 孟子, 荀子를 이은 사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sup>13)</sup>

동중서가 설명하고 있는 음양이론은 한초에 유행했던 저술들, 즉 『管子』·『呂氏春秋』·『淮南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론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다. 즉 동중서가 주장하고 있는 陰陽의 性質에는 순환성, 공간성, 시간성, 방향성, 상반성, 균형성, 속도성, 도덕성, 정치성, 과학성 등등이 있다. 그러나 동중서 陰陽의 도덕성과 정치성은 기존의 그것과 다른 독특한 주장이다. 예를 들면, 동중서에 앞서 管子가 陰陽의 도덕성과 정치성을 주장하였으나 동중서의 주장과 약간 다르다. 관자는 동중서와는 달리 [四時]에서 陽중심이 아닌 陰삼자, 和<sup>14)</sup>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15)</sup>

동중서의 철학체계에서는 통치자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분명 漢武帝가 유교를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儒學者들도 통치자만큼 두드러지지지는 않지만 거의 동등한 권력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자연의 징후를 해석하여 통치자의 정책을 저지한다. 이 때 동중서는

(1017-1073), 邵雍(1011-1077), 張載(1020-1077), 程顥(1032-1085), 程頤(1033-11107), 王安石(1021-1086), 南송의 陸九淵(1139-1193), 朱熹(1130-1200), 明의 王守仁(1472-1528), 淸의 王夫之(1619-1692), 근대의 康有爲(1858-1957) 등등이다.

- 9) 金春峯. 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p.44.  
 10) 陳鼓應 主編. 道家文化研究第三輯. 香港, 香港道教學院. 1993. p.286.  
 11) 鄭日童. 漢初의 政治와 黃老思想. 백산자료원. 1997. p.373. “동중서가 成人이 되어서 활동한 한초는 유학을 업신여기고 황로학을 숭상했던 景帝의 시대였고 당시 한초의 철학적 사조는 유가파벌이라는 악명 높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거친 황로사상의 시대였다. 동중서는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서운 역사적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춘추』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董仲舒의 유학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알 수가 있다. 무제가 즉위하여 새로운 정책과 사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동중서의 이상주의적 사상이 무제의 정치적 야망과 세련된 문화적, 학문적 갈증이 음양이라는 자연주의적이며 도가적인 이론을 혼합 절충한 황로학의 옷을 입은 새로운 유가의 꽃을 피우게 된다. 동중서는 음양학설을 그의 유가사상과 접목시켜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君臣 간의 윤리 및 군주의 정치 행위에 대하여 합리성을 구하려고 하였다.”  
 12) 王蘧常 主編. 中國歷代思想家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pp.1-3. 참조. 유가의 계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추시대의 孔子(B.C.551-B.C.479), 전국시대의 孟子(B.C.372-B.C.289), 荀子(B.C.313- B.C.238), 서한의 陸賈(서한초), 賈誼(B.C.200- B.C.168), 董仲舒(B.C.179-B.C.104), 동한의 荀悅(B.C.148- 209), 徐幹(B.C.171-B.C.218) 이후 신유가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唐의 韓愈(768-824), 李翱(772-842), 북송의 周敦頤

- 13) 梁啓超, 馮友蘭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p.47-48.  
 14) 管子.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함께 옮김.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50. “해는 양을 다루고 달은 음을 다루고 별은 和를 다룬다. 양은 덕이 되고 음은 형벌이 되고 화는 事가 된다.(日掌陽, 月掌陰, 星掌和. 陽爲德, 陰爲刑, 和爲.)”  
 15) 관자는 양을 덕, 음을 형벌, 政事는 和가 된다고 하였다. 즉 관자는 정치를 덕(양중심)도 아니고 형(陰중심)도 아닌 和(和)에 의하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陽 중심사상으로 轉換하려는 시도를 하여 성공하게 된다. 동중서의 이러한 시도는 그의 陰陽論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 2. 陰陽의 도덕성과 陽 중심사상

동중서는 음양이론에 陰刑陽德이라는 도덕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중서의 政治的 의도가 숨어 있다. 그의 政治的 의도란 前漢 初에 성행했던 黃老道家사상으로부터 儒家 사상으로의 轉換을 의미한다.

동중서는 자연의 이치인 陰陽사상을 刑·德에 대비하여 정치와 사회에 경고 및 가르침을 주고 있다. 비슷한 도덕적 陰陽論이 이미 『管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자는 음양형덕 사상을 단지 四時運行에 적용하여 인간의 禍福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sup>16)</sup>, 동중서는 그것을 陽 중심으로 轉換해야 할 政治的 이유로서 범위를 넓혀 발전시킨다. 동중서는 『春秋繁露』 「陽尊陰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음은 여름에 지하의 세계에 들어가 한 해의 생산적인 일을 맡지 못한다. 반면 겨울에 지상의 세계로 나와 할 일 없는 무의미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라고 크는 시절에는 지하에 엎드려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양의 일을 맡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할일이 없는 시절에는 무의미한 자리에 나서고 예정된 순환 주기를 채워서 꼭 막히고 닫힌 세계를 지킨다. 이것은 모두 하늘이 양을 가까이 하지만 음을 멀리하고 덕교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형벌에 적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나타낸다.<sup>17)</sup>

16) 管子.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함께 옮김.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43. “그러므로 음양이란 천지의 커다란 이치이다. 사시란 음양의 넓은 조리이다. 형과 덕이란 사시가 합한 것이다. 형과 덕이 사시에 적합하면 복을 낳고 어기면 화를 낳는다. (是故 陰陽者, 天地之大理也; 四時者, 陰陽之大經也. 刑德者, 四時之合也, 刑德合於時則生福, 詭則生禍.)”

17)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569. “故陰, 夏入居下, 不得任歲事, 冬出居上, 置之空處也; 養長之時伏於下, 遠去之, 弗使得爲陽也; 無事之時, 起之空處, 使之備次陳守閉塞也; 此皆天之近陽而遠陰, 大德而小刑也.”

여기에서 동중서는 하늘인 군주가 통치를 할 때에 陽인 德教를 가까이 하여야지 陰인 刑罰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王道通三」의 글이다.

음은 형벌의 기고 양은 은혜의 기다. 음은 가을부터 왕성해지기 시작하지만 양은 봄부터 왕성해지기 시작한다. 봄의 춘은 팔짝팔짝 뛰는 뜻이고 가을의 추는 쓸쓸하고 슬픈 모습이다. ....따라서 봄은 기쁨의, 여름은 즐거움의, 가을은 쓸쓸함의, 겨울은 슬픔의 시절이고, 죽음에 슬피하고 살아감에 즐거워한다. 여름에는 봄날에 태어난 것을 자라게 하고 겨울에는 가을날에 거둔 것을 간수하는데 이것은 대인의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앞세우고 엄격함을 나중에 내세우며 삶을 즐기고 죽음을 슬피하니 이것은 하늘의 常道다.<sup>18)</sup>

동중서는 陰陽에 대해서 자연의 사계절과 인간의 감정을 대비시켜 그의 주장을 펼친다. 그는 “陰은 형벌의 氣이고, 陽은 은혜의 氣”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陽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에서부터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중서는 봄과 여름은 기쁨과 즐거움의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과 겨울은 쓸쓸하고 슬픈 죽음의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슬피하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중서는 사랑, 즉 은혜를 좋아하여 앞에 내세우고 엄격한 刑罰을 싫어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태어나는 것은 즐겁고, 죽는 일은 슬픔이라는 것이 하늘의 일반적인 이치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陽이 왕성한 계절은 즐거움의 계절이고 陰이 왕성한 계절은 슬픈 계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중서는 陰陽을 기쁨과 슬픔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대비시키고 있다. 다음 글은 「陰陽位」편에 나온다.

18)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577. “陰, 刑氣也, 陽, 德氣也, 陰始於秋, 陽始於春, 春之爲言猶僂僂也, 秋之爲言猶湫湫也, 僂僂者, 喜樂之貌也, 湫湫者, 憂悲之狀也. 是故春喜 夏樂 秋憂 冬悲, 悲死而樂生, 以夏養春, 以冬藏秋, 大人之志也. 是故先愛而後嚴, 樂生而哀終, 天之當也.”

양이 활동 공간에 이르면 날씨가 찌는 듯이 덥고, 음이 활동 공간에 이르면 날씨가 얼어붙을 정도로 춥게 된다. 양이 휴지 공간에 이르면 땅속으로 들어가 탈바꿈 한다. [반면] 음이 잠복 공간에 이르면 땅속에서 [충일한] 생성의 힘을 피한다. 따라서 [양은] 여름에는 지상에 나와서 자라게 하고 겨울에 지하로 들어가 탈바꿈하는 것은 양이다. [음은] 여름에 땅 아래로 들어가 빈자리를 지키고 겨울에 지상으로 나와서 빈자리(空位)를 지키는 것은 음이다. 양은 권위의 자리 [實位]로 나왔다가 그런 자리[권위의 자리(實位)]로 들어가지만 陰은 空位의 자리로 나왔다가 그런 자리[공위의 자리]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처럼 하늘은 양에 의지하지 음에 의지하지 않고 德敎(충일한 생성)를 좋아하지 형벌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양은 한해에 각각 한 번씩 출현한다.<sup>19)</sup>

하늘은 통치자, 즉 군주를 의미한다. 군주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덕교(陽)에 의지하지 형벌(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음은 空位나 지키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다.

동중서는 陽의 계절인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만물을 자라게 하지만 陰의 계절인 겨울이 되면 땅 속에 들어가 쉬면서 탈바꿈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탈바꿈이란 陽의 계절이 오게 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만물을 움트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동중서는 陰은 추운 겨울에 하는 일없이 땅위로 나와 텅 빈 들판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반면에 陰은 여름, 즉 陽의 계절에 땅 속에 들어가 할 일 없이 공간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동중서는 陰은 땅 위에서든 땅 아래에서도 하는 일 없이 들판을 맴돌다가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陰은 空位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동중서의 陽 중심 이론이다. 陽은 땅위에 있을 때, 즉 봄과 여름에도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가

을과 겨울, 땅 속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은 추운 겨울에도 實位를 지키는 것이다.

하늘 대지의 정수를 뽑아내고 음양의 부류를 운용하여 일의 순조와 역조와 관련된 이치를 분별한다. 어느 곳에 이런 이치를 적용할 수 없겠는가? 예컨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뛰어나거나 별 볼 일 없거나 좋거나 나쁜 것 중에서 보잘 것 없는 종류는 하나같이 음에 해당되고 좋은 종류는 모두 양에 해당된다. 양은 덕교를 상징하고 음은 형벌을 상징한다. 형벌은 덕교와 상반되면서도 보충적 기능으로 인해 덕교에 상응하니 예외적 규칙(權)의 사례에 해당된다. 비록 변통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모두 불변의 원칙에 의거해서 성사되어야 한다.<sup>20)</sup>

윗글 「陽尊陰卑」에서 동중서는 크고 강하고 좋은 것을 陽에, 작고 약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을 陰에 배속시킨다. 그리고 동중서는 陽은 德敎, 陰은 刑罰이라는 善惡의 도덕적 가치를 陰陽論에 배속시킨다. 또 동중서는 陽인 남자는 덕교이며 여자인 陰은 형벌이라고 비유한다. 東洋社會 전반에 걸친 陽 중심사상은 바로 동중서의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기는 따뜻하지만 음기는 차갑고 양기는 뭔가를 주지만 음기는 뭔가를 빼앗고 양기는 사랑을 베푸지만 음기는 사납게 굴고 양기는 너그럽지만 음기는 다그치고 양기는 좋아하지만 음기는 싫어하고, 양기는 생명을 살리지만 음기는 생명을 죽인다. 따라서 동중서의 세계관에서는 陽은 늘 바람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왕성한 국면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陰은 늘 보잘 것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마무리에서 작용한다.<sup>21)</sup>

19) 董仲舒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93. “陽至其位, 而大暑熱; 陰至其位, 而大寒凍; 陽至其休, 而入化於地; 陰至其伏, 而避德於下。是故夏出長於上 冬入化於下者, 陽也; 夏入守虛地於下, 冬出守虛位於上者, 陰也。陽出實入實, 陰出空入空, 天之任陽不任陰, 好德不好刑如是也, 故陰陽終歲各一出。”

20) 董仲舒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p.567-568. “在上下, 在大小, 在強弱, 在賢不肖, 在善惡, 惡之屬盡爲陰, 善之屬盡爲陽, 陽爲德, 陰爲刑, 刑反德而順於德, 亦權之類也, 雖曰權, 皆在權成.”

21) 董仲舒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69. “故曰: 陽, 天之德, 陰, 天之刑也, 陽氣暖而陰氣寒, 陽氣予而陰氣奪, 陽氣仁而陰氣戾, 陽氣寬而陰氣急, 陽氣愛而陰氣惡, 陽氣生而陰氣殺。是故陽常居實位而行於盛, 陰常居空位而行於末, 天之好仁而近, 惡戾

다음 [堯舜不擅移, 湯武不專殺]에서 동중서는 도덕성을 잃은 군주에게는 하늘이 왕조를 교체한다고 말한다.

왕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자리다. 정벌된 나라 또는 인물은, 하늘이 빼앗은 대상이다.....하나라의 군주가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자 온나라가 그들을 대신했고, 주나라의 군주가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자 진 제국이 그들을 대신했고 진 제국의 군주가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자 한 제국이 그들을 대신했다. 이처럼 도리를 지키는 군주가 폭군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sup>22)</sup>

### 3. 政治的 陰陽과 陽 중심사상

동중서가 주장하는 陽 중심사상에서는 陰陽의 정치성이 대두된다. 이것은 治國과 治身이 동일한 방책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이러한 정치적 陰陽論은 동중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同時代 『管子』에서도 보이고 한 초술로 알려진 『呂氏春秋』·『淮南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도 陰陽論을 가지고 政治와 경제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漢代에는 陰陽五行說이 정치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중서는 그들과는 달리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넓혀 정치로 나아가서 陽 중심사상으로의 轉換을 시도한다.

『여씨춘추』 「심분」에 보면 “몸 다스리기와 나라 다스리기는 동일한 이치의 방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治身과 治國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다.<sup>23)</sup> 같은 시기에 지식인들은 우주의 규칙성위에서 국가의 권위를 발견하는 새로운 종합적인 관념형태를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고에 대한 同時代의 흐름을 끌어냈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와 인간 신체의 질서를 병렬시켰다. 그들은 통치자를 묘사했기 때문에 통치자는 우주

의 질서에 참가할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신체에 예방의 권위적 작용과 치료사들에 의해서 대우해 왔던 그의 대상들 각자에게 친숙한 치료를 실행해야 했다.<sup>24)</sup> 동중서가 주장하기를 하늘은 정기가 왕성해지도록 힘을 쏟고, 성인은 賢人이 많아지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그는 하늘이 陽氣가 집중력을 가져야 신묘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성인은 현인을 얻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해야 공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 「立元神」에서 말하고 있는 聖人是 국가의 군주이다. 治身과 治國에 대하여 같은 맥락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동중서는 陽氣에 대해서 말하면서 陰氣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늘은 여러 가지 精氣를 응축시켜서 스스로 굳세고 성인(성왕)은 여러 현인을 모아놓아서 스스로 굳건하다. 하늘은 해와 달 그리고 별 또는 별자리의 순서를 배열하여 스스로 빛을 내고 성인(성왕)은 작위와 봉록의 등급을 조절하여 스스로 지혜로워진다. 하늘이 굳센 것은 단 한 가지 정기의 힘에 의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인이 굳건한 것은 단 한 사람의 현인에 의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늘의 길은 정기가 왕성해지도록 힘을 쏟고 성인은 현인이 많아지도록 힘을 쏟는다. 하늘은 정기를 왕성하게 하고 양기가 집중력을 갖도록 하며 성인은 현인이 많아지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한다. 양기가 집중력을 가져야 신묘한 변화를 얻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해야 공업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굳건하게 세우고 안정되게 다스리는 방법으로 현인의 획득과 마음의 통일을 중요하게 취급한다.<sup>25)</sup>

다음 「天地之行」에서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심장과 몸에 비유하고 있다. 동중서는 君主가 賢命하

之變而遠 大德而小刑之意也, 先經而後權, 貴陽而賤陰也.”

22)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396. "王者, 天之所予也, 其所伐, 皆天之所奪也.....故夏無道而殷伐之, 殷無道而周伐之, 周無道而秦伐之, 秦無道而漢伐之, 有道伐無道, 此天理也."

23)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347.

24) Geoffrey Lloid and Nathan Sivin. the Way and the Word. Yale University Press. 2002. p.236.

25)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p.322-323. "天積衆精以自剛, 聖人積衆賢以自強; 天序日月星辰以自光, 聖人序爵祿以自明; 天所以剛者, 非一精之力, 聖人所以強者, 非一賢之德也故天道務盛其精, 聖人務衆其賢; 盛其精而壹其陽, 衆其賢而同其心; 壹其陽, 然後可以致其神, 同其心, 然後可以致其功; 是以建治之術, 貴得賢而同心."

면 신하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심장이 神靈하면 몸이 온전해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반대로 몸이 편안해지면 군주로 비유되는 심장이 안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군주가 현명하지 않고 아둔하면 신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군주로 비유되는 몸의 귀와 눈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신하로 비유되는 손발이 다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또한 동중서는 臣下가 忠直하지 않으면 군주가 멸망하게 되는 데 그것은 臣下로 비유되는 몸을 함부로 하면 군주인 심장이 다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의 사이는 심장과 몸의 사이와 같다. 그러므로 군주인 심장이 굳건하고 현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신하인 몸이 군주인 심장에게 순종하고 충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대로 동중서는 군주인 심장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신하인 몸의 역량에 달려 있어서 君主인 심장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臣下인 몸의 공로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주가 명민하면 신하가 그이의 은공을 입게 되는 데 이것은 심이 신령하면 몸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다. 신하가 출중하면 군주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몸이 편안해지면 심이 안정되는 것과 같다. 위사람이 아둔하면 아랫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귀가 밝지 않고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 손발이 다치게 되는 것과 같다. 신하가 충직하지 않으면 군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몸을 함부로 제멋대로 놀리게 되면 심이 그것으로 인해 다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 사이의 예는 심과 몸의 사이와 같다. 심이 굳건하지 않을 수 없고 군주가 현명하지 않을 수 없다. 몸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가 충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몸의 역량에 의존하고 군주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신하의 공로에 의존한다.<sup>26)</sup>

26)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p.830-831. "君明, 臣蒙其功, 若心之神, 體得以全; 臣賢, 君蒙其恩, 若形體之靜, 而心得以安; 上亂, 下被其患, 若耳目不聰明, 而手足爲傷也; 臣不忠, 而君滅亡, 若形體妄動, 而心爲之喪。是故君臣之禮, 若心之與體; 心不可以不堅, 君不可以不賢; 體不可以不順, 臣不可以不忠; 心所以全者, 體之力也; 君所以安者, 臣之功也."

다음 동중서의 글은 몸을 다스리는 것(治身)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治國)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몸의 정기를 국가의 현자에 비유하였다. 즉 治身의 가장 핵심은 精氣이고 治國의 핵심은 賢者를 불러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몸을 다스리는 자는 비움과 고요함을 유지하여 정기를 모으도록 노력한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 낮추고 사양하여 현자를 불러들이도록 노력한다. 정기를 모으면 신명이 깃들어 장수하게 된다. 현자를 불러들일 수 있으면 은총과 혜택이 골고루 퍼져서 온 나라가 태평해진다.<sup>27)</sup>

동중서는 精氣를 賢者로 보고 賢者(精氣)를 불러들이려면 군주인 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군주는 겸손해서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 즉 군주인 몸이 고요하게 되어 정기인 현자가 모여들어, 서로 존중하며 낮추어 군주는 仁者가 될 수 있고 신하인 현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기를 불러들이려면 반드시 [마음을] 텅 비게 하고, 몸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현자를 오게 하려면 [군주는] 반드시 제 자신을 낮추고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 몸이 고요하고 의도가 비게 되면 정기가 모여든다. 사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스스로 낮추면 인자와 현자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sup>28)</sup>

이와 같이 동중서는 국가의 군주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심장과 정기를 유비시키고 있다.<sup>29)</sup>

27)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348. "故治身者, 務執虛靜以致精, 治國者, 務盡卑謙以致賢, 能致精, 則合明而壽, 能致賢, 則德澤洽而國太平."

28)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348. "夫欲致精者, 必虛靜其形; 欲致賢者, 必卑謙其身, 形靜志虛者, 精氣之所趣也; 謙尊自卑者, 仁賢之所事也."

29) 우리는 동중서의 저술 가운데에서 비유의 방법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주와 심장, 벼(禾)와 쌀(米), 하늘과 군주, 사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감정, 고치(蠶)와 실(絲), 나무와 뿌리, 계란(卵)과 병아리(雛) 등이다.

4. 董仲舒의 性情論과 陽 중심사상

동중서는 유가에서의 인성론의 두가지 주류인 맹자의 성선론과 순자의 성악설과는 다른 性情說을 제시하고 있다. 맹자의 성선설과 달리, 동중서는 性이 王教를 매개로 해서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性과 善 사이에는 반드시 왕의 교화의 매개가 있어야 하고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천이 개입되어야 한다.<sup>30)</sup> 이것은 유가의 정통 인성론인 맹자의 주장과 순자의 주장을 종합하는 성격을 가진다.

동중서는 陽 [중심] 을 선仁) 으로 보고 陰을 불선 貪) 으로 보고 있다. 양이 음을 이기듯이 선이 불선을 이겨야한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동중서는 天이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사람도 性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性情二元論을 제시했다. 그래서 性은 천지의 양의 기운과 상동하여 仁 [善] 을 행하고, 情은 陰의 기운과 상동하여 貪 [惡] 이 된다고 하여 인성 속에는 선과 악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고 함으로써 인성이 선한가 악한가하는 一元論의인 낚은 대립을 청산하였다.<sup>31)</sup>

사람의 심리적 사실로는 탐욕의 측면이 있고, 진실한 사랑의 측면이 있다. 사랑과 탐욕의 기는 둘 다 사람의 몸에 갖되어 있다. 身(몸)의 명명은 天에서 연유한다. 천은 음과 양이라는 두 기의 작용이 겹비하고 있다. 신도 탐욕과 사랑의 두 성향을 갖추고 있다. 천에 음이 있지만 그것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신에도 정욕이 있지만 그것은 절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것은 하늘의 길과 동일하다.<sup>32)</sup>

동중서는 「深察名號」에서 하늘에는 陰陽이 있고 몸 [身] 은 貪慾과 사랑(仁)이 있다.<sup>33)</sup>고 말한다. 이

것은 그가 陰陽論을 들어서 性情論을 주장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는 하늘에 있어서 陰陽과 사람에 있어서 탐욕과 사랑을 같은 것으로 비유한다. 여기에서 동중서는 하늘에 있는 두 氣, 즉 陰陽 중에서 陰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중서는 하늘에 있는 陰陽을 마치 사람 안에 있는 탐욕 [貪] 과 사랑 [仁] 으로 비유하면서, 陰을 통제시켜야 하듯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탐욕도 절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동중서는 그의 性情論에 孟子나 荀子와는 달리 陰陽의 도덕성을 가지고 말한다. 그리고 동중서는 몸 [身] 과 天을 같은 것으로 비유 하고 있다. 天이 陰陽을 가지고 있듯이 몸도 性·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중서는 인간의 性을 天의 양으로 보고 있고 인간의 情을 天의 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情이 性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은 陽이 陰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동중서의 대표적인 陽 중심사상이다. 양기는 仁의 상징이고, 음기는 貪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情에는 이익의 慾望이 생겨나고 性에는 仁이 생겨난다.<sup>34)</sup>

동중서는 性이 이미 선하다고 하면 情을 설명할 수 없다<sup>35)</sup>고 한다. 만약에 인간의 性이 이미 善하다고 하면 王이 할 일이 없어지고 만다. 동중서는 하늘이 王에게 소임을 준 목적 중에 하나는 ‘王教’이기 때문이다. ‘王教’라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중서는 王에게 하늘이 이 소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왕이란 바로 하늘의 명령을 직접 받게 되는 하늘과 같은 존재로 부상시킨다. 동중서는 하늘은 뜻이 있어서 백성을 낳고 王을 세운 목적도 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天意)’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중서의 독창적인 人性論을 볼 수 있다. 하늘의 뜻은 바로 天子인 王이 아직 온전치 못한 백성의 성품을 教化시켜주어야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성은 누에고치와 비슷하고 알과 비슷하다. 알은 품어야만 부화가 되고 누에고치는 켜야만 실이 되듯

30) 신정근.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파주. 태학사. 2004. p.161.  
 31) 金奉建. 董仲舒의 人性論. 哲學論叢 第 6輯. 1990. p.8.  
 32)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p.514-515. “人之誠有貪有仁, 仁貪之氣兩在於身·身之名取諸天, 天兩 有陰陽之施, 身亦兩, 有貪仁之性, 天有陰陽禁, 身有情欲 與天道一也.”  
 33)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14.

34) 班固. 신정근 역주. 백호통이. 서울. 소명출판. 2005. p.318.  
 35)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17.

이 마찬가지로 성은 교화를 거쳐야만 좋아 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천도다. 하늘은 인민에게 선이 아니라 선의 바탕으로서 성을 부여했다. 이것이 하늘의 의도다.(天意) 인민은 하늘로부터 아직 선하지 않는 성을 부여받아서 후천적으로 왕으로부터 성을 완전하게 하는 교화를 받는다. 왕은 하늘의 의지를 이어서 인민의 성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간주한다.<sup>36)</sup>

위의 글 「深察名號」에서 동중서는 맹자의 성선설을 부인하고 있다. 천이 왕을 세운 목적이 바로 백성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성은 이미 태어날 적부터 좋아나 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教化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교화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을 善으로 교화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중서는 하늘의 재해와 인성에 대해서 「盟會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에 더 이상 災害가 일어나지 않아야 人性이 선량하게 될 수 있다. 人性이 착하게 되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고결해지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흐름이 형성된다. 마음이 고결해지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흐름이 형성되어야만 도덕 왕의 길[王道]이 실행되고 禮樂의 가치가 진작된다. 聖人の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sup>37)</sup>

동중서는 사람의 성품에 仁과 貪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착하게 해야 재물에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王道와 禮樂의 실행을 재해와 인성에 연관 지어서 말하고 있다. 즉 왕도가 실행되면 災害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禮樂이 바르게 되면 人性은 善하게 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동중서는 “王의 教化만 있으면 人性은 善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바로 그것이 王의 존재이유”<sup>38)</sup>라고 하였다. 동중서는 王은 하늘이 낳은 인물이고 命한 者니 그를 天子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중서가 王을 하늘과 같은 존재로 격상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중서의 陽 중심 설, 바로 王 중심설이다. 그러므로 동중서는 王이 백성을 教化시켜서 백성의 人性을 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동중서는 王에게 힘을 실어준다. 한편으로 백성이 惡하게 되는 것도 王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동중서의 작전이다. 윗글에서 보이는 聖人은 孔子이다. 동중서는 孟子나 荀子の 性善說이나 性惡說과는 달리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독특한 人性論을 「深察名號」에서 주장한다.

하늘-대지가 생성한 것은 性情이라 일컫는다. 性과 情을 합쳐서 모두 暋이라 일컫는다. 情도 性의 일부분이다. “性이 이미 善하다”(性已善)라고 일컫는다면 情은 어떻게 되는가? 聖人, 즉 공자는 ‘性善’을 말한 적이 없다. 아마 그것이 명명의 원칙과 위반되기 때문이리라. 身(몸)이 性과 情을 겸비하고 있듯이 天은 陰과 陽을 겸비하고 있다. 사람의 바탕(性)을 말하면서 情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을 陽과 연관짓고 陰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 논의는 누구에게도 수용될 때가 없을 것이다.<sup>39)</sup>

동중서에게 있어서 人間은 夫子 兄弟 君臣 長幼의 윤리를 지님으로써 만물 중 가장 존귀하지만 여전히 氣로 충만한 천지간의 만물 가운데 一物, 즉 역시 氣

36)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18. “名性不以上, 不以下, 以其中名之. 性如繭如卵, 卵待覆而成雛, 繭待纏而爲絲, 性待教而爲善, 此之謂眞天. 天生民性有善質而未能善, 於是爲之立王以善之, 此天意也. 民受未能善之性於天, 而退受成性之教於王, 王承天意以成民之性爲任者也.”

37)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253. “天下者無患, 然後性可善, 性可善, 然後清廉之化流, 清廉之化流, 然後王道舉, 禮樂興, 其心在此矣.”

38) 李妍承. 董仲舒의 人性論; 未善의 人性. 中國學報 第四十三輯. 2001. p.484.

39)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17. “是正名號者於天地, 天地之所生, 謂之性情, 性情相與爲一暋, 情亦性也, 謂性已善, 奈其情何? 故聖人莫謂性善, 累其名也. 身之有性情也, 若天之有陰陽也, 言人之質而無其情, 猶言天之陽而無其陰也, 窮論者無時受也.”

의 集合體이다. 따라서 그는 타고난 그대로의 자질을 性이라고 정의는 내리지만 이 역시 고정적인 質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資라고 말하든 質이라고 말하든 동중서에게 있어서 性은 기본적으로 氣이며 이들 용어 역시 유동적인 기의 다른 樣態이기 때문이다.<sup>40)</sup> 여기에서 氣는 陰陽二氣를 말하고 있다. 동중서는 하늘에 陰陽二氣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陰陽二氣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중서가 주장한 天人合一說<sup>41)</sup>과 天人感應論<sup>42)</sup>의 기초가 된다. 또한 동중서는 陰陽을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인간의 도덕적 善惡에도 적용을 시킨다. 이 또한 孔孟의 주장과 다른 동중서의 독특함이다. 동중서는 인성의 근거를 인성 자체 내에서 구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天에서 구했다. 그는 먼저 인간의 신체구조와 情感·意志는 天의 모습과 닮아 있다<sup>43)</sup>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중서는 하늘은 大宇宙요 사람은 小宇宙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의 인성론 속에는 인간을 天과 동류라고 보는 小宇宙 개념이 있으며 이는 孔孟이 天을 道德的 自覺心의 窮極的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데에서 氣화된 인간의 신체에 이르기까지 天人感應의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 것이다.<sup>44)</sup>

이와 같이 陰陽二氣와 관련된 동중서의 성정론은 후한 때에 발생한 道教의 養生術에 크게 기여한다. 동중서는 黃老學의 養生에도 큰 관심을 가진 학자였다. 당시 時代의 상황에서 동중서는 儒家의 仁義禮智信에 대한 사상뿐 만 아니라 양생술을 통해 國家와 몸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유학에서는 心統性情이라고 해서 性情을 心에 직접 연결해 心으로 性情을 제어한다고 했지만 동중서는 몸을 매개로 전제하였다.<sup>45)</sup> 동중서는 「順天之道」에서 養生과 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 어떤 도사가 말한 적이 있다. “최약해지지 않으려면 하나의 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은 정신이 육체를 떠나지 않으면 氣가 많아지고 체내에 가득 차서 배고픔과 추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쾌활은 생명의 外的 평화고, 정신은 생명의 內的 충일이다. 외적 평화는 내적 충일에 못 미치는데 하물며 외적 손상은 뭐라 말하겠는가? 성내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은 생명을 손상시키는 길이지만 평화롭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젯거리가 없는 것은 생명을 보양하는 길이다. <sup>46)</sup> 따라서 양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氣를 아끼는 것이다. 氣는 精神으로부터 생겨나고 精神은 意志로부터 생겨난다. 마음이 나아가는 것이 意志다. 意志가 괴로운 사람은 精神이 산란하고 精神이 산란한 사람은 氣가 적어지고 氣가 적은 사람은 생명이 오래가기 힘들다. 그러므로 군자는 넘치는 욕망을 억제하고 惡意를 제지하여 意志를 잠잠하게 하고, 意志를 잠잠하게 만들어 精神을 안정시키고 精神을 안정하게 하여 氣를 보양한다. 氣가 풍부하고 맥락이 서게 되면 몸을 기르는 대강을 갖추게 된다.<sup>47)</sup>

40) 李妍承, 董仲舒의 人性論. 未善의 人性. 中國學報 第四十三輯, 2001. p.474.

41) 李妍承, 董仲舒-음양의 조절자. 大同文化研究 第 58輯, 2007. p.471. “동중서의 천인합일설은 하늘에 춘추동, 즉 暖清寒暑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회노애락이 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중서에서의 천인합일은 인간 중의 인간인 人主의 회노애락과 하늘의 暖清寒暑가 하나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늘이 인간 중에 인간인 人주에게만 반응하지 아무에게나 반응하지 않는 천인합일설이다.”

42) 남상호, 汎韓哲學. 범한철학회. 2000. 제22집. p.187.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인간의 행위와 하늘의 음양오행이 서로 반응한다는 것이다...이것은 고대의 천인합일설을 모델로 한 것이다. 고대의 천인합일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중서는 그것과는 달리 동기상응한다는 이론을 주장한다.” 董仲舒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653. “하늘에 음과 양이 있고 사람에게도 음과 양이 있다. 하늘-대지의 음기가 모습을 보이면 사람의 음기가 그것에 호응하고 사람의 음기가 나타나면 하늘-대지의 음기도 마땅히 그것에 호응하여 나타난다. 두 가지의 길은 일치한다.”(동중서의 천인감응의 방법)

43) 金奉建, 董仲舒의 人性論. 哲學論叢. 1990. 第6輯. p.8.

44) 金奉建, 董仲舒의 人性論. 哲學論叢. 1990. 第6輯. p.11.

45) 변문홍, 동중서의 내향적 철학 연구. 인문학연구. 2007. 제 34권 제 3호. p.323.

46) 董仲舒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812. “古之道士有言曰：「將欲無陵，固守一德。」此言神無離形，而氣多內充，而忍饑寒也。和樂者，生之外泰也，精神者，生之內充也，外泰不若內充，而況外傷乎！忿恤憂恨者，生之傷也，和說勸善者，生之養也。”

47) 董仲舒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812. “故養生之大者，乃在愛氣，氣從神而成，神從意而出，心之所之謂意，意勞者神擾，神擾者氣少，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중서의性情論은陰陽二氣와 연관되었다. 동중서의 이러한 이론은 자연스럽게 몸과養生으로 연결되기에 이른다.

5. 董仲舒 陰陽論과 『黃帝內經』 陰陽論의 비교

鄒衍의 陰陽論이 董仲舒에서는 儒家哲學으로 흡수되었고, 『黃帝內經』에서는 의학적으로 정리되었다. 본 장에서는 董仲舒 陰陽論과 『黃帝內經』의 陰陽論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동중서의 陰陽論과 『황제내경』의 陰陽論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주제는 서로 같으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보인다. 즉 이 둘은 서로 음양에 도덕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동중서가 음양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前漢 초 성행했던 黃老學(陰 중심사상)으로부터 天子의 강력한 통치권자를 위한 儒家(陽 중심)로의 轉換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醫學者들은 음양이론을 醫學에 적용시켜서 疾病의 발생과 치료에 관련하여 설명한다. 『황제내경』에서의 ‘陰陽’은 병을 치료하는 根本이 된다. 『陰陽應象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양은 하늘과 땅의 도리요, 만물의 버리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작이며 신명의 곳집이니,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 48)

윗글에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근본은 ‘陰陽’이다. 다음 글은 「生氣通天論」에 음양도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의 음양도

덕성은 인간의 疾病과 연관이 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옛날부터 하늘에 통하는 자, 즉 왕은 삶의 근본을 陰陽에 두었으니.....統治자가 자주 이 법칙을 어기면 邪氣가 백성을 해치니 이 陰陽의 이치로 본원을 삼는 것이 왕의 天命을 길게 하는 근본이다. 하늘의 기운이 청정하면 곧 백성의 志意가 다스려지고 맑고 고요한 五神을 따르면 陽氣가 堅固해져, 비록 賊風, 邪氣가 있을지라도 해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이에 四季節의 순서를 따름이다. 49)

윗글에서 왕이 治國을 함에 음양의 이치로 그 근본을 삼는 것이 왕의 天命(壽命)이 장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통치자가 음양오행의 법칙을 자주 어기면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어 邪氣로 백성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다. 하늘의 기운이 청정하여 맑고 고요한 五神을 따르게 되면 邪氣가 백성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가 하늘의 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天人相應의 思想이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다. 50)

동중서의 음양도덕성과 『황제내경』에서의 음양도덕성을 종합해보자면 『황제내경』에서는 ‘삶(生)은 덕이 되고, 죽음(死)은 刑이 된다’는 동중서의 양 중심 이론과는 다르다. 『황제내경』에서의 음양 도덕성은 위의 「생기통천론」에 나타나는 五神, 즉 仁義禮智信과 관련이 있다. 하늘인 王이 氣運을 청정하게 하여 五神을 따르게 되면 왕은 長壽할 것이며 백성들 역시 邪氣에 상하지 않게 된다는 養生의 의미의 도덕성을 말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란 동중서에서의 陰陽 도덕성은 陽 중심의 정치적 전환(유가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少者難久矣.故君子閑欲止惡以平意, 平意以靜神, 靜神以養氣, 氣多而治, 則養身之大者得矣.”

48)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81. “黃帝曰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49)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31-32. “黃帝曰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九竅五藏十二節, 皆通乎天氣. 其生五, 其氣三, 數犯此者, 則邪氣傷人, 此壽命之本也.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50)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32-33.

『황제내경』에서의 陰陽 도덕성은 음양조화를 의미한다. 음양이 肉身을 낳기도 하지만 精神에도 깃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七情(정신)이 病의 원인이 된다는 說이 여기에서 보인다.

또한 『黃帝內經』 「四氣調神大論」의 글을 보면 통치자가 음양의 법칙을 어기면 천지의 氣가 조화를 잃어 사기가 발생하여 백성을 병들게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故로 陰陽과 四時는 만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잠시라도 여기에서 떠날 수 없으며 만물이 살고 죽는 근본이 됩니다.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생기고 이를 따르면 혹독하고 사나운 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를 일러 도를 얻었다 할 것입니다. 도는 성인께서는 이를 실행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난하고 반대하여 실행하지 않으니 음양의 이치를 따르면 살고 거스르면 죽으며 이를 따르면 다스려지고 이를 거스르면 어지러워지니.<sup>51)</sup>

위의 『황제내경』에서는 聖人の 통치가 陰陽을 어기면 백성들의 生死와 疾病에 관계된다는 주장이다. 동중서는 災異와 王權에 대해 왕이 제대로 통치하면 상서로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하늘의 變怪와 災殃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에서 동중서가 주장한 人性論에서 백성들을 教化시키기 위해 왕의 교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 왜냐하면 왕의 교화가 제대로 되면 백성들의 人性은 좋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人性도 惡하게 되듯이, 왕이 모범을 보이면 상서로운 조짐이 일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災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중서의 이론은 모두 왕의 교화 및 권한의 행사와 연관되어 있다. 동중서는 왕을 하늘의 아들, 즉 天子라는 呼稱과 함께 항상 하늘의 祥瑞와 災害와도 연결시키면서 왕을 하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

다.(天爲君) 다음은 「王道」의 글이다.

춘추의 세계는 왜 기원을 강조하는가? 기원은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사태의 기준이 정확해진다. 道는 왕이 가야할 길이다. 왕은 사람이 가야할 길의 시작이다. 왕이 모범을 보이면 원기, 즉 우주의 근원적인 기가 균형을 이루어, 때에 맞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景星과 같은 상서로운 별자리가 나타나고, 황룡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반대로 왕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위로는 하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재앙의 조짐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sup>52)</sup>

『황제내경』의 주 관심사가 인간의 질병과 生死에 관한 것이라면, 동중서의 주된 관심사는 백성의 人性과 王教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 하늘-대지의 변화에 의지해서 만물을 성장시키거나 훼손시키고 음양의 의존 관계를 살려서 만물의 하는 일을 내버려두어야 한다. 따라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업적에 손상을 끼치게 되니 제 스스로 일을 그르치게 만든 것이다.<sup>53)</sup>

『황제내경』 「陰陽離合論」에서는 음양이 四時와 물질(氣)의 生長收藏에 관련된다. 즉 음양은 만물의 生長收藏과 病에 관여하고 있다.

故로 양기가 발생하는 것은 봄의 기운으로 인하고 形體의 成長은 여름의 기운으로 인하며, 陽氣가 거두어지는 것은 가을의 기운으로 인하고 陽氣를 潛藏하여 씨앗에 감추는 것은 겨울의 기운으로 인합니다.

52)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183. "春秋何貴乎元而言之? 元者, 始也, 言本正也; 道, 王道也. 王者, 人之始也. 王正, 則元氣和順, 風雨時, 景星見, 黃龍下. 王不正, 則上變天, 賊氣并見."

53)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태학사. 2006. p.848. "世治而民和, 志平而氣正, 則天地之化精, 而萬物之美起; 世亂而民乖, 志僻而氣逆, 則天地之化傷, 氣生災害起, 是故治世之德潤草木, 澤流四海, 功過神明; 亂世之所起, 亦博若是; 皆因天地之化, 以成敗物, 乘陰陽之資以任其所爲, 故爲惡愆人力, 而功傷名自過也."

51)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28-29.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道者, 聖人行之, 愚者佩之, 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亂...."

이러한 四時의 生長收藏하는 攄攄한 기운을 어기면 天地의 氣交가 사방에서 막히게 됩니다.<sup>54)</sup>

위의 「陰陽離合論」의 글에서는 봄이 생명을 낳고 여름은 기르고 가을과 겨울에는 죽게 되는 이치가 계절의 순환이라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sup>55)</sup>

동중서에 따르면 양은 불변의 원칙에 맞추어 추진하고 음은 그것에 어긋나게 추진한다. 처음에 불변의 원칙에 어긋나게 추진되다가 그것에 맞게 되면 양이고, 처음에 그것에 맞추어 추진되다가 궁극적으로 그것에 어긋나게 되면 음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은 음을 예외적 규칙(權)의 논리로 간주하고 양을 보편 원리(經)의 논리로 간주한다.<sup>56)</sup>

이와 같은 동중서의 입장과 달리 『황제내경』 「陰陽應象大論」에서는 음양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故로 말하기를 天地는 만물의 위와 아래로서 兩極을 이루고 음양은 血氣의 남녀이며 左右는 음양의 昇降運動을 일으키는 通路이고, 水化는 음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徵兆이니,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타고난 원초적 능력이나 재능이라고 하였거늘, 故로 말하기를, 陰은 안에 있어서 陽의 지키는 바가 되고 陽은 밖에 있어서 陰의 부리는 바가 된다고 합니다.<sup>57)</sup>

다음 『황제내경』 「生氣通天論」에는 陽氣를 陰氣보다 우선한 내용이 보인다. 즉 이것은 『황제내경』에 있는 陽 중심사상이다.

사람에게 陽氣가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 陽氣가 그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잃으면 天壽를 꺾어서 生命力이 衰하여 밝게 빛나지 못할 것이다.<sup>58)</sup>

이는 陽氣를 중시하는 易學의 전통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sup>59)</sup> 이 같은 양 중심의 음양론을 政治에서가 아닌, 醫家에서도 주장한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張介賓(1563-1640)은 明代의 醫家로서 陽氣를 생명의 근본으로 삼고 생명을 귀히 여겨 보존코자 하면 마땅히 양기를 아껴야 한다는 ‘溫補立論’<sup>60)</sup>의 바탕을 세웠다. 또 그는 “相火爲元氣之本”이라는 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人之生氣 以陽爲主 難得而易失者 惟陽 既失而難得者亦惟陽也”라고 하였다. 그는 精血로 陽을 삼아 “治病者必以形體爲主 欲治形者必以精血爲先”이라 하였다. 이것은 즉 陽으로써 生命의 根本을 삼아, 生命을 귀히 여겨 保存코자 陽氣를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보약을 남용하는 폐해를 가져왔다.<sup>61)</sup>

陽 중심사상의 장점은 陽氣가 통제력(조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는 음양조화를 깨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중서의 陰陽論과 『황제내경』의 陰陽論의 차이점, 그리고 동중서 음양론의 한계와 『황제내경』의 陽 중심사상에

54)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146. “故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 失常則天地四塞.”

55)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83. “一年 四時의 계절에서 보면 양기의 發揚으로 만물이 생하고 여름에는 음기의 작용으로 형체를 부풀려 한껏 자라며 가을에는 찌꺼기를 떨쳐버리고 겨울에는 거두어들이는 양기를 음기가 잘 갈무리하여 속에 감춘다.”

56)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과주. 대학사. 2006. p.568. “是故陽行於順, 陰行於逆; 逆行而順, 順行而逆者, 陰也. 是故天以陰爲權, 以陽爲經; 陽出而南, 陰出而北; 經用於盛, 權用於末; 以此見天之顯隱權, 前德而後刑也.”

57)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119. “故曰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

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故曰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58)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35.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則折壽而不彰.”

59) 丁彰炫. 內外 陰陽의 관점에서 본 韓醫學의 歷史.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4). p.169.

60) 홍원식, 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370. “溫補之劑는 人蔘으로 補陽하고, 熟地로 補陰했는데, 報陣之方에서는 특히 熟地를 重視하였다. 그의 處方에서는 熟地가 빠지지 않으므로 張熟地라는 稱까지 있다.”

61) 홍원식, 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p.368-371.

대해서 살펴보았다.

### III. 結論

동중서는 陰과 陽에 도덕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음은 형벌의 氣이고, 양은 은혜의 氣라는 선악의 개념을 도입했다. 즉, 동중서는 양은 德을 상징하며 强하고 크며 좋은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음이란 刑罰을 상징하며 弱하고 작으며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몸을 다스리는 治身과 국가를 다스리는 治國을 같은 이치로 보았다. 그는 군주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심장과 精氣를 유비시켰다. 몸의 정기를 불러들이려면 반드시 마음을 편히 해야 하고, 몸을 고요히 해야 하며, 나라에 賢才를 불러들이려면 군주는 반드시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동중서는 治身에서 양생의 방법을 설명하였고, 治國에 관련하여 災異說을 주장하였다. 하늘의 재해는 곧 군주와 백성들의 人性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중서는 性情論이라는 음양 이론과 관련된 人性論을 폈다. 이것은 儒家의 성선설과 성악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동중서는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의 몸 안에도 탐욕과 사랑(仁)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탐욕을 음에, 사랑을 양에 비유하였다. 또한 하늘이 왕을 세운 목적은 백성을 교화시켜 백성의 마음을 仁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동중서는 유학자로서 또 다른 人性論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중서에 의한 儒家의 擴充이었다.

사랑(仁), 양 중심의 이론을 펼친 동중서는 前漢초의 정치 사조였던 황로 도가 중심으로부터 유가 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儒家의 獨尊化를 이루어 당시 힘을 잃고 있었던 유가를 살려냈다. 그리고 이러한 동중서의 양 중심사상은 『內經』 및 後代 韓醫學에 肯定的이거나 혹은 否定的 영향을 주었다. 陽 중심사상이 『內經』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道德 중심이 아닌 陽氣를 天氣로 보

고 있는 점이다. 즉 上의 위치에 있는 天氣가 下의 위치에 있는 萬物을 통제하여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萬物에는 인간의 身體가 포함된다. 부정적인 영향은 지나치게 補陽을 하여 補藥을 남용하는 폐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比較 연구는 앞으로 韓醫學 陰陽論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醫學治療 입장에서 좀 더 발전적인 陰陽論을 완성해 가는데 一助가 될 것이다.

### IV. 참고문헌

#### <논문>

- 김제란. 동양적 가부장제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음양사상-선진에서 한 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中國哲學. 2000. 第7輯. p.8.
- 李妍承. 董仲舒의 人性論; 未善의 人性. 中國學報. 2001. 第四十三輯. p.484, 474.
- 李妍承. 董仲舒-음양의 조절자. 大同文化研究. 2007. 第58輯. p.471.
- 남상호. 동중서의 천인감응의 방법. 汎韓哲學. 범한철학회. 2000 가을. 제22집. p.187.
- 변문홍. 동중서의 내향적 철학 연구. 인문학연구. 2007. 제 34권 제 3호. p.323.
- 丁彰炫. 內外·陰陽의 관점에서 본 韓醫學의 歷史. 大早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제21권(통권 제43호). p.169.

#### <단행본>

- 張實龍. 董仲舒學說內在理路探析.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7. p.148.
-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p.19.
- 老子. 오강남 풀이. 道德經. 서울. 현암사. 2002. p.39, 55, 159, 259, 320, 328.
- 최재목 역주. 老子. 서울. 을유문화사. 2006. pp.28-29.
- 司馬遷. 史記第十冊. 北京. 中華書局. 1996. p.3127.

6. 馬勇. 曠世大儒 董仲舒.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2000. pp.2-3.
7. 金春峯. 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p.44.
8. 陳鼓應 主編. 道家文化研究第三輯. 香港. 香港道教學院. 1993. p.286.
9. 鄭日童. 漢初의 政治와 黃老思想. 서울. 백산자료원. 1997. p.373.
10. 王蘧常 主編. 中國歷代思想家 上. 復旦大學出版社. 1996. pp.1-3.
11. 梁啓超, 馮友蘭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179. pp.47-48.
12. 管子.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함께 옮김. 관자. 소나무. 2006. p.543, 550.
13. 董仲舒 撰. 신정근 옮김. 춘추-역사 해석학. 파주. 태학사. 2006. p.569, 577, 593, 396, 347, 348, 514, 517, 518, 253, 484, 821, 183, 848, 568, 569. pp.567-568, 322-323, 830-831. 514-516.
14. Geoffrey Lloid and Nathan Sivin. the Way and the Word. Yale University Press. 2002. p.236.
15. 신정근.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파주. 태학사. 2004. p.161.
16. 金奉建. 董仲舒의 人性論. 哲學論叢. 1990. 第6輯. p.8, 11.
17. 班固. 신정근 역주. 백호통이. 서울. 소명출판. 2005. p.318.
18.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註. 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集文堂. 2005. p.81, 146, 83, 119. 35. pp.31-32, 32-33, 28-29.
19. 홍원식, 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370. pp.368-371.